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Adaptation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승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im-Young Yang(yangsy@sewc.ac.kr)*, Soo-Kyung Park(park@daejin.ac.kr)**,
Mi-Sook Kim(mskim@kihasa.re.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우울 및 자존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등 7개의 대도시지역의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인 초등학교 3~6학년, 중1~3학년 아동 305명, 그의 어머니 295명이다.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 지지가 낮을수록, 이용한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친구 지지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친구지지가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교사지지, 이용한 프로그램 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 시 이중문화특성과 사회적 자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친구지거나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 특성을 반영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중심어 : | 이중 문화적응 | 사회적 자본 | 우울 | 자존감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adaptations such as depression and self-esteem. A survey was conducted on 295 foreign-born mothers and their 305 children, ranging from third to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up to seventh to ninth grade in middle school, residing in South Korea's seven major cities, including the city of Seou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the following: 1) With regards to factors that influence depression among children in a multicultural family, less support from a friend leads to a larger exposure to multicultural programs. Also, the lower the perceived income level of his or her family, greater is the state of the child's depression. 2)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self-esteem for multicultural children are friends' support, level of mother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achers' support, and numbers of multicultural programs.

Two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from this study. One is the need to consider b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to enhance psychological adaptability for children raised in multicultural families. Another is to apply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such as friends' and teachers' support to multicultural programs.

■ keyword : | Bicultural Adaptation | Social Capital | Depression | Self-Esteem |

* 본 연구의 일부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다(NRF-2010-330-B00194),(제3저자).

접수번호 : #130503-001

심사완료일 : 2013년 05월 27일

접수일자 : 2013년 05월 03일

교신저자 : 양심영, e-mail : yangsy@sewc.ac.kr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연 3만 건 내외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약 57만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결혼이민자는 21만명, 자녀는 15만명이며, 결혼이민자만큼 한국인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문화가족은 57만명을 차지하고 있다[1]. 또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적 증가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38,67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30,040명과 비해 약 28.7%가 증가한 것으로[2],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적응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주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점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화적응은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문화적응에 대한 입장은 크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단선모델과 긍정적면과 부정적인 입장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다선 모델이 있다. 단선모델에 의하면, 이중문화성은 단일 문화적 자아정체감을 갖는 경우보다 더 많은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보인다고 본다[5-7]. 한편, 양차원 모델(Bidirectional Model)에 따르면, 인간이 주류사회문화와 자신의 출생문화를 모두 수용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잠재 능력도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이중문화적인 개인이 반드시 언어적 혼란을 겪거나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2개의 문화와 접촉하여 갈등을 내면화하지 않는 한 두 문화와의 접촉은 유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8][9], 이중문화 정체성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다고 본다[10]. 이처럼 문화적응이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응과 심리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또래,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지원 역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선행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11][12].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그들에게 공동의 행동 규범 및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인간과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삶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해 집단에서의 적응을 도모할 때 의미가 있다[12]. 실제로 선행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자본 특성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는 집단, 비공식적 집단에 참여할수록 우울증이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13]. 한편, 박소은·이채원(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특성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와 함께 아동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15-18]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특히 가족 사회적 자본(family social capital)과 학교 사회적 자본(school 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 의사소통, 관심 등 가족 내 정서적 관계, 학교에서 맺는 학생 교사 간의 유대감 등 가족과 학교 내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18-20]. 이러한 유사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 적응 역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인 우울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학령기 후기 아동은 발달상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정서발달과정에서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시기로[21], 청소년기 우울증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울적한 기분이 주된 증상으로 대인관계 위축, 권태감, 무력감, 수면 및 식사 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 아동들도 우울증을 보이지만, 우울한 기분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다가 청년후기에 다시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우울증후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22].

또한 초기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정체감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 자신이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스트레스가 중복되어서 나타날 때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 행동의 문제발생에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6]. 외

국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단일인종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유급등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더 빈번히 나타내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5][23][24].

또한 Geum 외(2006)는 한국 다문화가족청소년의 14%가 우울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1.4%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25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일반아동과 비교하는 연구들은 아직 소수이며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 그 차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박주희·남지숙(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불안, 과잉행동, 우울행동등 심리적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나[26] 전경숙(2008)의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과 불안정도는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동이 더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지각하는 우울과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적응에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해 보다 실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27].

2. 이중문화성에 관한 선행연구

이중문화성(Biculturalism)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이 직접 접촉하고, 이 때문에 어는 한 문화나 두 집단 모두의 원래 문화 패턴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문화적응스트레스란 “문화적응의 경험에 근거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29].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30].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는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과 동시에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광금주(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특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

고 반응적이고 민감하며 과제를 적절히 구조화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전은애(2008)연구에서도 결혼이주가족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2].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정도를 통하여 적응의 정도를 가늠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문화에 대한 척도[33]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아동의 문화적응정도를 살펴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은 아직까지 분석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으로써 그 실체와 기능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34].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 자신의 행동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35]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 개인이 갖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속한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36].

Coleman[17][37]은 사회적 자본의 여러 효과 중 다음 세대·인적자본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의 성장에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 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가족 내외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부모의 인적·물질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Coleman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38] 박소은·이채원(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이 양육효능감의 위험요인이 됨을 보고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개입지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부적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39]. 이를 다문화 아동에게 적용해 볼 때, 다문화아동의 지역사회에의 관여는 사회네트워크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과 신뢰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지속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삶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울러 다문화사회로서의 자본 형성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자본의 차원으로서 가족, 학교의 교사, 친구의 지지[14]뿐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을 예측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이중문화성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통해 설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즉 이중문화적 특성에 관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의 부정적 시각이 지니는 단선모델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중문화성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아직 시도되지 않은 우리나라 아동의 이중문화적응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심리적 적응과 관련시켜 보았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으로서 기존연구들이 다루어왔던 가족, 친구, 교사의 차원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 보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다문화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자본의 연결망의 차원을 확장하려는 사회적 시도를 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단선이 아닌 다선적인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가정 내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다문화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정립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심리적 적응의 차원으로서 우울과 자존감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군을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관련특성, 사회적 자본특성으로 나누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변수는 성별, 중학생여부, 주관적 경제수준이며 다문화관련특성으로서는 어머니의 한국어수준,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이중문화수용정도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자본 특성으로는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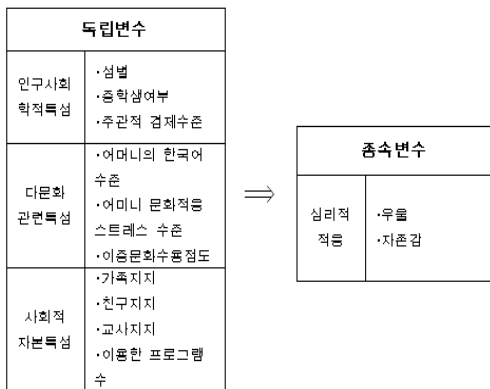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족 아동은 외국 국적의 여성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결합하여 형성된 가족의 자녀를 말한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보건복지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연구」에서 수집하였던 데이터 중 다문화 아동 및 부모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40].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국내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7개 지역의 대도시(서울, 경기, 충북,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내 다문화가족 아동 초 3~6학년, 중1~3학년 학생 및 그 어머니로 설정하였다. 37개 학교 중 다문화가족으로부터

회수된 371개 설문지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다문화 부모295명, 다문화가족 아동 3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응 스트레스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홍미기(2008)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으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의 7개 영역 중 죄책감의 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2) 이중문화수용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Cortes, Rogler and Malgady의 이중문화 척도(Bicultural Scale) 척도를 활용하였다. 위 척도는 다문화 성인에게 적용된 내용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상이한 이중문화척도(Bicultural Scale)가 활용된 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다문화가족 아동에 적용한 경우는 처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위 척도를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것이다.

다문화가족 모의 본국에 대한 적응도 10문항과 소속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도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어머니나 적응도 문항의 신뢰도는 .893이었으며 한국 문화 적응도 문항의 신뢰도는 .891이었다.

3) 사회적 지지

Dubow와 Ullman[41]의 사회적 지지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김명숙(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SAS척도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한다

것으로 각 8 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가족지지 신뢰도는 .89, 친구지지 신뢰도는 .94, 교사지지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42].

4)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43]이 개발한 소아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BDI)를 8-13세의 아동 연령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등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0-2점이며 총 우울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가능하다. 신뢰도는 .93이었다.

5)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관련변수들의 기술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 및 자존감에 다문화 관련특성, 사회적 자본특성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결과

[표 1]은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 관련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과 종속변수인 우울과 자존감에 대한 기술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조사대상아

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49.2%, 여학생이 50.8%로 절반씩 차지하였고, 학년을 보면 초등학교생이 52.5%로 중학생 47.5%보다 약간 많았다.

표 1.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변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n=305)		
	남	150(49.2)	
	여	155(50.8)	
	학년 (n=295)		
	초등학교생	160(52.5)	
	중학생	145(47.5)	
	주관적 경제수준 (n=295)		
	매우 어렵다	4(1.3)	
	어렵다	41(13.4)	
	보통이다	200(65.6)	
	잘 사는 편이다	54(17.7)	
	매우 잘 산다	6(2.0)	
	다문화 관련 특성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n=295)		
	매우 서툴다	0(0.0)	
	약간 서툴다	17(5.6)	
	보통이다	59(19.3)	
	약간 잘 한다	108(35.4)	
	매우 잘 한다	121(39.7)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n=295)		2.278 (.651)
	이중문화수용정도 (n=291)		3.035 (.457)
	사회적 자본 특성		
가족지지 (n=304)		3.579 (.781)	
친구지지 (n=296)		3.137 (.711)	
교사지지 (n=284)		3.184 (.721)	
이용한 프로그램 수 (n=286)		3.790 (2.454)	
0개	21(7.3)		
1-2개	76(26.6)		
3-4개	85(29.7)		
5-6개	59(20.6)		
7개 이상	45(15.7)		
종속 변수	우울점수 (n=295)		35.959 (8.777)
	자존감 (n=239)		2.969 (.552)

조사대상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인 65.6%로 응답아동의 2/3를 차지하였으며, ‘잘 사는 편이다’, 또는 ‘매우 잘 산다’라고 답한 비율이 19.7%였고, ‘매우 어렵다’ 또는 ‘어렵다’라고 답한 비율은 14.7%로 나타나 6명 중 1명 정도만이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특성을 보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 ‘매우 잘 한다’ 또는 ‘약간 잘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 35.4%, 39.7%로 응답자 4명 중 3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반면 ‘약간 서툴다’고 답한 경우는 5.6%, ‘매우 서툴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19.3%로 대부분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점수를 보면, 5점 만점에 2.278점, 이중문화 수용정도 점수는 3.035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보면, 가족지지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579점이었고, 친구지지 평균점수는 3.137점, 교사지지 평균점수는 3.184점으로 가족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기관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개수를 보면, 3-4개를 이용했다고 답한 비율인 29.7%로 가장 많았고, 1-2개가 26.6%,

5-6개가 20.6%, 7개 이상이 15.7%였고,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7.3%를 차지하였다. 종속변수인 우울 평균점수는 35.959점이었고 자존감 평균점수는 2.969점이었다.

[표 2]는 인구학적 특성, 다문화 관련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1단계에 성별, 중학생 여부, 주관적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다문화 아동의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은 3.3%였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경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추가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이중문화 수용정도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6.3%로 1단계에 비해 3% 증가하였고, 주관적 경제수준과 이중문화수용정도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에 더해 사회적 자본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7.7%로 2단계보다 21.4%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이용한 프로그램 개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 지원이나 공식적 지원체계 등과

표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P	β	P	β	P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052	.426	.038	.555	.004	.939
중학생 여부	-.051	.436	-.039	.550	.017	.775
주관적 경제수준	-.177**	.007	-.150*	.024	-.131*	.026
다문화 관련 특성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049	.467	.021	.739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038	.578	-.044	.469
이중문화수용정도			-.156*	.017	.039	.554
사회적 자본 특성						
가족지지					-.104	.138
친구지지					-.368***	.000
교사지지					-.105	.165
이용한 프로그램 수					.181**	.002
	R ² = .033 Adjusted R ² = .021 F = 2.682*		R ² = .063 Adjusted R ² = .038 F = 2.557*		R ² = .277 Adjusted R ² = .245 F = 8.648***	

*p < .05, **p < .01, ***p < .001

같은 사회적 자본 특성이 다문화 아동의 우울감을 설명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문화 특성 중 2단계에서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이중문화 수용정도는 3단계 사회적 자본 특성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다문화 관련 특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적 자본 특성에 비해 우울감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은 인구학적 특성, 다문화 관련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1단계에 성별, 중학생 여부, 주관적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에 불과하였고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단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추가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이중문화 수용정도와 같은 다문화 관련 특성을 투입해 본 결과, 설명력은 19.6%로 1단계에 비해 15.6%나 증가하였고 어머니 한국어 수준과 이중문화수용정도가 자존감과 유

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에 더해 사회적 자본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45.4%로 2단계보다 25.8%나 증가하였고, 어머니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높을수록, 이용한 프로그램 수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단계에서 유의미한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이중문화 수용정도가 3단계에서는 더 이상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공식 지원체제나 공식적 지원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다문화 관련 특성은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자존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보다는 이중문화 수용정도가 자존감에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특성

표 3.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P	β	P	β	P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26	.079	-.115	.086	-.030	.603
학년	.137	.062	.094	.172	-.001	.993
주관적 경제수준	.135	.064	.095	.160	.064	.259
다문화 관련 특성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274***	.000	.203**	.001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038	.582	.040	.501
이중문화수용정도			.292***	.000	.090	.152
사회적 자본 특성						
가족지지					.130	.052
친구지지					.367***	.000
교사지지					.166*	.022
이용한 프로그램 수					-.135*	.019
	R ² = .040 Adjusted R ² = .025 F = 2.709*		R ² = .196 Adjusted R ² = .171 F = 7.738***		R ² = .454 Adjusted R ² = .425 F = 15.482***	

[*p < .05, **p < .01, ***p < .001

과 사회적 자본 특성이 우울과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 지지가 낮을수록, 이용한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친구 지지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족 아동의 친구 지지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강성률(2009)의 연구에서 경북지역의 다문화아동의 경우 친구지지가 높은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낮음을 밝히고 있으며[44], 홍진주(2003)의 경우도 강한 친구지지를 지닌 아동이 친구와의 유대가 약한 집단보다 덜 우울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45].

반면, 가족지지가나 교사지지는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에게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우울을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강성률(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어머니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이중문화수용정도 등과 같은 문화적응 특성들과 우울감과의 관계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통제했을 때 이중문화수용정도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 자본 특성이 투입되면서 더 이상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 특성이 사회적 자본특성에 비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살펴본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상과 달리 이용한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보다는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부방, 예체능, 특기 취미교실, 독서지도, 독서무료 대여, 아동상담, 견학·문화체험·캠프, 가족동반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외국어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심리적 적응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 이용한 프로그램 개수가 많다고 해서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시 아동의 경제적인 상태나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를 고려하고 친구의 지지 정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어머니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이용한 프로그램 수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존감 관련 요인 중 친구지지가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교사지지, 이용한 프로그램 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친구지지가 우울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실제로 홍진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지지가 강한 다문화아동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님을 밝히고 있어 친구지지는 다문화아동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6].

이와 함께 또 다른 사회적 자본 특성인 교사의 지지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이미 다른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영주(2007)와 진혜민(2007)은 교사지지는 다문화 아동의 차별로 인한 심리적 곤경을 완화시켜주는 가족이나 친구지지보다 더 중요한 대처자원임을 밝히고 있다[47][48].

한편 이용한 프로그램 수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이용한 프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더 우울해진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현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은 아동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가족 지지는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같은 문화적응 특성은 오히려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심리적인 적응에 있어 어머니의 문화적응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의 문화적응정도는 우울과 자존감 모두, 사회적 자본특성이 투입된 최종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투입되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문화적응정도가 심리적 적응에 있어 사회적 자본 특성보다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낮지만 프로그램 개입 시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실천 개입에 필요한 제언을 하면, 우선,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서 친구의 지지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므로 개입 시 친구 지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자존감에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프로그램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리적 적응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을 심리적인 적응상의 어려움이 없는 지를 스크리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문화적응정도 역시 우울이나 자존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높이는 개입 시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문화아동의 대표성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도시지역의 교육청을 도움을 받아 전국지역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화하기에는 우려가 있다. 다문화아동을 한국에서 태어난 결혼이주 어머니의 자녀로 선정함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중도입국 아동들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이중문화적 특성이 다문화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있어 결과도출의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나아가 일반아동을 포함한 향후 연구를 통해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함께 논의된다면 내일의 다문화사회

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료적 가치를 확보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12.

[2]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다문화 가정학생 교육지원 계획*, 2012.

[3] 전기태, *201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4] 박계란, 이지민,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 pp.89-99, 2011.

[5] Y. Choi, T. W. Harachi, M. R. Gillmore, and R. F. Catalano, “Are multiracial adolescents at greater risk? Comparisons of rates, patterns, and correlates of substance use and violence between monoracial and multiracial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6, No1, pp.86-97, 2006.

[6] A. L. Whaley and K. Francis,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Vol.12, No.2, pp.169-174, 2006.

[7] S. Cheng and K. J. Lively, “Multiracial Self-Identification and Adolescent Outcome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Marginal Man Theory,” *Social Forces*, Vol.88, pp.61-98, 2009.

[8] A. M. Padilla, “Bicultural development: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amination,” In R. Malgady & O. Rodriguez(Eds.), *Theoretical and conceptual issues in Hispanic mental health*. Melbourne, FL: Krieger Publishing Co. Inc, pp.20-51, 1994.

[9] J. S. Phinney and M. Devich-Navarro,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 Afric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7, pp.3-32, 1997.
- [10] C. Y. Cheng, J. Sanchez-Burks, and F. Lee, "Connecting the dots within: Creative performance and identity integration," *Psychological Science*, Vol.19, No.11, pp.1178-1184, 2008.
- [11] 은선경,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3권, pp.37-74, 2010.
- [12] 전병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37-247, 2012.
- [13] 이진향, 박기수, 김록범, "우울증상에 관련된 요인과 우울증상이 지각된 건강수준, 외래의료이용,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8권, 제1호, pp.81-92, 2011.
- [14] 박소은, 이채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38권, pp.359-384, 2012.
- [15] 김현주, 이병훈,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pp.125-148, 2007.
- [16] 안우환,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제30권, 제3호, pp.161-184, 2003.
- [17] J.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18] M. J. Dufur, T. I. Parcel, B. Mckume, "A. Capital and context: using social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to predict chil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9, No.2, pp.146-161, 2008.
- [19] 이경은, 주소희, "가족내외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제2호, pp.113-132, 2008.
- [20] 이재훈, 김경근,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제13권, 제2호, pp.175-208, 2007.
- [21] C. M. Buchanan, J. Eccles, and J. Becker, "Are adolescents the victims of raging hormones? Evidence for activational effects of hormones on moods and behavior at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3, pp.62-107, 1992.
- [22] H. Chen, D. Mechanic, and S. Hansell, "A longitudinal study of self-awareness and depressed mood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7, pp.719-734, 1998.
- [23] J. T. Gibbs, "Identity and marginality: Issues in the treatment of biracial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pp.265-278, 1987.
- [24] E. K. Shrake and S. Rhee, "Ethnic identity as a predictor of problem behavior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Vol.39, pp.601-622, 2004.
- [25] 이영주,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6] 박주희, 남지숙,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 pp.279-152, 2010.
- [27] 전경숙,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6권, 제1호, pp.167-185, 2008.
- [28] 왕비비,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전략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29]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No.1, pp.5-68, 1997.
- [30] 박형원,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해외이주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 구, 제18권, 제8호, pp.1-25, 2010.
- [31] 광금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 [32] 전은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3] Cortes, E. Dharma, L. H. Rogler, and G. Robert, "Malgady. Biculturalism among Puerto Rican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2, pp.707-721, 1994.
- [34] 노유성,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5] 김동윤, 오소운, *사회자본, Nan Lin. 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36] J. Glanville and E. Bienenstock, "A typology for understanding the connections among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2, No.11, pp.1507-1530, 2009.
- [37]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J. Coleman.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3.
- [38] 양숙경, 문혁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7권, 제7호, pp.59-71, 2009.
- [39] 이회경, 박종관,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192-200, 2012.
- [40] 김미숙, 김유경, 김안나, 김효진, 성수미, *다문화 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41] E. F. Dubow and D. G. Ulman,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pp.52-64, 1989.
- [42]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43] M. Kovacs, "Ration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adapsychiatrica*, Vol.45, pp.112-126, 1981.
- [44] 조수철, 이영식,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제29권, 제4호, pp.943-955, 1990.
- [45] 강성률,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6] 홍진주,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7] 이영주,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1호, pp.79-101, 2008.
- [48] 진혜민, *빈곤가정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양 심 영(Sim-Young Yang)

정희원



- 198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9년 2월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사회복지학박사)

• 2002년 3월 ~ 2013년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가족복지, 상담치료

박 수 경(Soo-Kyung Park)

정회원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1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1999년 3월 ~ 2013년 현재 :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재활, 청소년복지, 산업복지

김 미 숙(Mi-Sook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문학석사)
 - 1994년 8월 : 미국 Purdue University 철학박사
 - 1997년 4월 ~ 2013년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아동복지정책, 아동권리, 다문화아동